

#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유산의 동북공정 국가주의적 역사관과 유산 해석 방향

채규철\* · 김숙진\*\*

## The Nationalistic View of History and Direction of Heritage Interpretation in China's Northeast Project Regarding 『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Gyu-cheol Chae\* · Sook Jin Kim\*\*

**요약 :** 중국의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는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과 함께 200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문제는 같은 고구려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달랐다는 점이다. 고구려는 한반도의 옛 영토였으나 현재는 중국의 영토에 포함된 지역으로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는 과거의 국가 영토와 현재 영토의 불일치에 기인한 유산 해석의 차이를 드러낸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고구려 유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나타난 고구려사 인식을 살펴보고, 중국의 동북공정이 영향을 미친 역사, 유산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중국의 국가주의적 유산 해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포용적 유산 해석을 제시한다. 포용적 유산 해석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집단의 역사적 시각과 유산 해석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특정 국가나 민족의 입장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유산을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

주요어 : 유산 해석, 국가주의, 포용적 유산 해석, 중국, 고구려, 세계유산

**Abstract :** China's ‘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were registered as World Heritage sites in 2004, along with North Korea's ‘The Complex of the Koguryo Tombs.’ The problem i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both Goguryeo relics, China and North Korea have different historical perceptions of Goguryeo history. Goguryeo was an ancient territory of the Korean Peninsula, but is currently part of Chinese territory. ‘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 reveals differences in heritage interpretation due to discrepancies between the past national territory and the current territory. This paper criticizes the nationalist heritage interpretation influenced by China's Northeast project by analyzing the World Heritage nomination text China submitted to UNESCO. We propose an 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as a way to overcome China's nationalistic heritage interpretation. 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is an approach that reflects th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heritage interpretations of various groups, moving away from a nationalistic perspective, and thereby seeking to understand heritage from a broader perspective beyond the position of a specific country or ethnicity.

Key Words : Heritage interpretation, Nationalism, 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China, Goguryeo, World heritage

\*양주시청 문화관광과 유산종무팀장, 학예연구사(Academic and Artistic Researcher, Culture and Tourism Department, Yangju City, ranke84@korea.kr)

\*\*건국대학교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sjkim@konkuk.ac.kr)

## I. 머리말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2년 2월부터 5년간 추진된 프로젝트로, 중국 동북 지방의 여러 문제를 학제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중점 과업이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고구려사 연구가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고구려를 우리와 단절시키고 자국 소수민족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동북공정에 기반해 작성된 문서가 바로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등재 신청서로, 2003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 제출되었다. 중국은 이 신청서에서 고구려 유산 43개소를 등재 신청했으며, 여기에는 국내성을 비롯한 세 곳의 고구려 수도와 왕릉 14개소, 귀족 무덤 26개소가 포함되었다.

중국의 등재 신청서는 2004년 3월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과 같이 이코모스에 의해 등재 권고되었고, 2004년 7월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였는데, 문제는 같은 고구려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달랐다는 점이었다. 고구려에 대한 역사 인식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 고구려 유적을 공동 등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강경한 반대와 다른 국가들의 비판에 직면하자 2004년 양국의 유적을 동시에 등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등재에 성공하였다(신미아, 2011).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고구려 유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나타난 고구려사 인식을 살펴보고, 중국의 동북공정이 영향을 미친 역사, 유산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국가주의적 유산 해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포용적 유산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포용적 유산 해석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집단의 역사적 시각과 유산 해석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특정 국가나 민족의 입장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유산을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 고구려는 한반도의 옛 영토였으나 현재는 중국의 영토에 포함된 지역으로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는 과거의 국가 영토와 현재 영토의 불일치에 기인한 유산 해석의 차이를 드러낸다. 지리적 영토와 주권의 미스매치(mismatch)로 인해 고구려에 대한 해석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고구려의 역사적 의미와 유산 해석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유산은 유산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하는 유산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용적 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의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대한 비판은 신미아(201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국의 등재 신청서 내에서 고구려사에 대한 인식과 유산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나연(2021)은 한·중·일 3국의 세계유산 해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포용적 유산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나연의 연구는 고구려 유산의 중국 등재 신청서 내에서 드러나는 국가주의적 역사관과 유산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고구려 유산 등재 신청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그 속에 담긴 국가주의적 역사·유산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포용적 유산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용적 유산 해석은 고구려 유산이 특정 국가나 민족의 역사적 소유물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와 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자산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고구려라는 존재의 역사적 의미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구려 유산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II. 국가주의의 유산 해석에서 포용적 유산 해석으로

유산은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핵심적 요소로 기능하였다. Anderson(1991)이 말한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국가의 건설과 유지를 위해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 유산의 발굴과 지정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다. 즉, 근대 영토적 민족국가의 건설은 영토 내의 다양성과 이질성 배경이 필요한데 이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동질성, 보편성의 재현물로서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유산이 그 역할을 한 것이다(김숙진, 2021).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가 세워진 시점, 또는 전쟁이나 식민 지배 기간을 넘어 먼 ‘과거’와의 연결을 통해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유산은 더 먼 ‘과거’와의 연결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로 기능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게 된다(이나연, 2022). 이는 문화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정치적·문화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요소임을 의미한다(정수진, 2007). 이런 점에서 국가 유산은 ‘국가 정체성이 건설되고 권력과 특권의 형태가 정당화되고 찬양되는 정치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Lumley, 1988:2).

유산과 국가주의의 밀접한 관계는 비단 근대 국가 형성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후에도 유산은 국가의 정체성, 전통을 확립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승자의 논리에 의해 ‘역사의 전리품(the spoils of history)’이 되기도 한다(Lowenthal, 1998). 국가주의적 유산 해석의 핵심은 특정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국가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영토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과거의 유산을 현재의 국가 경계 내에서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은 문화유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정 시대의 역사적 해석이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강조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산은 현재의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역사와 다르다(Turnbridge and Ashworth, 1996). 국가주의적 유산 해석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특정 국가의 입장을 강조하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국가 간 영토 분쟁이나 문화적 정체성 논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주의적 유산 해석은 외교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러한 국가주의적 유산 해석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 등재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학술적 수단이 동원되었으며, 고구려 유산은 단순한 문화적 유산이 아닌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유산 보호와 정치적 목적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여주며, 유산 해석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포용적 유산 해석(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은 비판문화유산협회(Association of Critical Heritage Studies)

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기존의 근대적 유산 해석이 국가나 소수 전문가에 의해 공인된 유산 담론(authorized heritage discourse)을 통해 가치 규정이 이루어졌음을 비판하며 그간 경시되었던 비주류 집단인 토착 원주민, 여성, 지역 공동체, 패전국 등이 바라보는 유산의 가치와 해석에 주목한다(이현경 등, 2020; 이나연, 2022). 특정 국가나 민족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산 해석을 수용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포용적 유산 해석은 기존의 주류 담론만이 유일한 유산 해석이라는 배타적 태도를 비판하며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이 유산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시선과 내러티브를 존중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s)’라는 일종의 공인된 유산 담론에 근거해 왔던 세계유산의 가치 식별 과정과 유산 해석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08년에 제시된 ‘문화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위한 이코모스 헌장(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은 유산 해석 활동에서 이러한 포용성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보의 원천(Information Source) 원칙 2항에서 연구 해석은 반드시 역사상 대안적 가설, 지역적 전통과 구전을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3항에서 살아있는 경험자의 기억이 유산의 의미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이들이 현장 해설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맥락과 주변 환경(Context and Setting) 원칙 2항에서 일반 대중을 위해 문화유산을 해석하려면 유산의 시대적 단계와 변천 과정에 나타난 영향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기록하고 각 시대가 유산의 중요성에 끼친 영향을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3항에서 유산의 중요성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기여한 모든 그룹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ICOMOS, 2008).

포용적 유산 해석 관점은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의 보존을 위한 호주 이코모스 헌장(The Australia ICOMOS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of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헌장은 기존의 기념물과 유적 중심의 유산 개념을 넘어 더 포괄적인 ‘장소’ 개념을 제시하며 장소는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련의 다양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포용적 유산 해석을 지향하고 있다(1.2항). 5.1항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장소의 보존은 문화적, 자연적 중요성의 모든 측면을 확인하고 고려해야 하는데 다른 의미를 희생하면서 어

편 하나의 가치를 부당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Australia ICOMOS, 2013). 이는 문화유산이 단순한 국가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용적 유산 해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며 다양한 집단의 기억을 포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해석만을 반영하기보다는, 다국적 협력과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수용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포용적 유산 해석은 단순히 여러 국가의 의견을 병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다층적 내러티브를 반영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고구려 유산을 예로 들면,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국제적인 학술 공동체의 연구 결과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 유산 해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 III.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와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등재 신청서

#### 1.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의 역사와 동북 변경정책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연구, 당안 정리, 번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공모했고, 모두 110개 과제를 선정했다. 동북공정에서의 역사 연구는 현재 중국의 영토에 속하는 지역과 그 지역에 살았던 민족의 과거사는 모두 중국사에 속한다고 보는 통일적다민족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김현숙, 2022). 이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은 한족이 세운 정치체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영토에 속하는 여러 소수 민족들의 역사 전개가 모두 하나의 중화 민족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었다는 논리로,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김준희, 2023). 중국의 고구려사 귀속 문제에도 이 논리가 적용되었다.

동북공정을 통해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고구려가

고이족(高夷族)에서 비롯되었다는 고구려의 기원 문제이다. 동북공정 이전 중국의 고구려 기원에 대한 주류학설은 예맥 기원설 또는 부여 기원설이었다. 하지만 동북공정이 전개되면서 이전까지 소수 학설에 불과하였던 고이족 기원설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는 중국 『일주서(逸周書)』에 3세기 진(晉)왕조 사람 공조(孔晁)가 왕회해(王會解) 편에 보이는 고이에 대하여 “고이는 동북이인 고구려이다(高夷東北夷高句麗)”라 주석을 붙인 것에 유래하였다. 하지만 그 근거가 고이족과 고구려의 공통되는 한자인 “높을 고(高)”를 연결시킨 것에 불과하여, 중국 내에서도 이 책에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 고이족은 중국의 삼황오제 가운데 하나인 전욱 고양씨로 연결되는데 결국은 이 학설대로라면은, 주 왕조 이전 시기부터 중국 중원에서 활동한 민족이 고구려를 세운 것이 된다.

또한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고구려의 대외관계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고구려의 도성이 왕조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해서 한사군(漢四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고구려 자신도 독립 정권이 되려 하지 않았고 중국의 역대 통치자들 역시 고구려를 중국의 것으로 여겨 고구려에 대해 효과적인 통치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고구려가 역대 중국 왕조의 지방 정권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고구려의 통치제도의 발전과 조공 관계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러한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핵심은 중국의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압록강 이남 한반도 중부지역의 역사는 고구려 영역이었지만 현재 중국의 영토는 아니므로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학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고구려의 평양 천도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의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평양 천도 이후에는 과거 낙랑군이 이곳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과거의 영토를 기준으로 삼아 고구려사는 중국사라 주장하고 있다.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이 외에도 고구려 멸망 이후에 그 주체 집단이 한족에 융합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고구려와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을 부정하였으며, 우리의 전통적 역사 인식인 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고씨와 고려의 왕씨는 혈연적으로 다르며 시간적으로 250년이나 차이가 나므로 역사적 계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고구려를 자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우리 역사와 분리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

였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중국이 여러 소수민족을 자국민으로 편입하여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주의적 역사관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역사관은 후술할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라는 이름의 43개소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해석 방향에도 영향을 주었다.

## 2.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나타난 중국의 국가주의적 역사관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고구려 역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고구려 유산에 대해서도 진행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을 비롯한 수도 3개소와 고구려 왕릉 14개소, 고구려 귀족 무덤 26개소가 여기에 포함되었으며, 등재 신청서는 동북공정의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2003년 1월에 공식 제출된 이 등재 신청서는 2004년 3월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과 같이 이코모스에 의해 등재 권고되었고, 2004년 7월 최종 등재에 성공하였는데, 문제는 같은 고구려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달랐다는 점이었다. 고구려에 대한 역사 인식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 고구려 유적을 공동 등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강경한 반대와 다른 국가들의 비판에 직면하자 2004년 양국의 유적을 동시에 등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등재에 성공하였다(신미아, 2011).

중국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살펴보면 당시 “하나의 중국”을 지향했던 중국의 국가주의적 의도가 곳곳에 드러난다. 첫째, 중국의 등재 신청서에서는 고구려를 고구려 민족이 세웠고, 고구려 멸망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의 등재 과정에서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항목을 적용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중국은 등재 신청서 내에서 “이 유적은 사라진 고구려 문명이 남긴 특별한 발자취이다”라고 하면서 “고구려는 668년 멸망하였다. 고구려 민족은 다른 민족과 점차 융화되었다. 고구려 문화는 인류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고, 역사 문헌에 봉인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UNESCO, 2004a:14). 등재 신청서 내에는 전술한 ‘고이족 기원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멸망 후 사라졌다는 언급에서 볼 때 중국에 동화되었다는 중국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고구려가 예맥의 기원에서 나왔고 삼국시대의 한 축이었으며,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발해, 고려로 역사적 계승을 했다는 우리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둘째, 중국은 자국 내에 위치한 고구려 유산이 중국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문화적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중국은 “고구려의 수도들은 산악도시의 초기 예로, 이후 주변 문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광개토태왕릉비에는 한자로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고구려가 중국 언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무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예술적 기량과 독특한 양식에도 다른 문화의 영향이 나타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UNESCO, 2004a). 이에 대한 근거로 광개토태왕릉비에 새겨져 있는 1,775자(字)의 한자와 고분 내 벽화에서의 생활 습관에 대한 기록, 유교, 불교, 도교의 수용 등을 들고 있으며, 이를 미뤄볼 때, 당시 고구려는 중국어 체계를 채택하였고, 자체적인 문자를 창조하지 않았으며, 고구려의 귀족들이 중원의 생활 방식을 숭배하고 모방하였다고 등재 신청서 내에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등재 신청서를 보면 벽화에 대하여 고구려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벽화의 발전상이 후에 한국 회화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언급한다는 점에서 유산을 만든 주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표 1).

또한, 광개토태왕릉비의 한자 비문과 관련, 중국의 등재 신청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국내성과 환도산성이 수도였던 425년 동안 고구려는 중국어 체계를 완전히 채택하였다. 이 두 도시는 고구려 시대 동안 가장 많은 한자 기와가 수집된 장소이기도 하다. 호태왕비는 동북 아시아 문명 역사에서 가장 초기의 비석으로, 가장 많은 문자를 담고 있으며, 고구려의 역사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공식 서체에서 정규서체로의 중국 서예의 발전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이기도 하다(UNESCO, 2004a:11).

고구려는 자체적인 문자를 창조하지 않았고, 한자를 수용하였다. 호태왕 비석에는 1,775자의 한자가 새겨져 있으며, 현재 1,590자를 인식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가 중

표 1. 북한과 중국의 등재 신청서 내에 주장하는 고구려 벽화에 대한 평가

북한	중국
<p>신청된 고구려 무덤 중에서 장식된 무덤은 풍부한 그림 프로그램과 높은 예술 수준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다. 실제로 고구려 무덤의 가치는 벽화 자체에서 비롯된다.(중략) 벽화의 내용은 현대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공식적인 행사, 왕족 및 다른 귀족의 실내 생활, 전투장면, 생산활동, 불교 행사,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및 종교 장면 등이 포함된다.(중략) 고구려 무덤의 벽화는 인물, 색상 및 붓놀림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들 중 많은 걸작이 현대 미술의 발전을 나타낸다. 초상화, 장묘화, 스케치, 풍경화, 상상화 등이 포함된다. 고구려 벽화는 생동감 있고 감정적이면서도 우아한 외관이 특징이다. 고구려 무덤의 벽화는 후에 한국 회화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사용된 색소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UNESCO, 2004b).</p>	<p>벽화 고분은 중세 동북 아시아의 예술 보물이며, 중국 중원 문화가 고구려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침투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중략) 신선한 지역 민족적 색깔은 강한 중국 회화 스타일을 드러낸다. 연희, 여행, 황제의 가마, 요정과 같은 기이한 동물의 주제는 전국시대, 진나라 및 한나라 이래 유행했던 회화 패턴의 재창작이다. 학자의 복식, 사신, 연꽃 및 불꽃 문양은 동한 및 위진 시대의 유교, 도교 및 불교 예술 양식에서 차용된 사상이다. 더 깊은 수준에서 고구려 벽화는 중원 문화가 고구려의 여러 사회적 측면에 뿌리 내리고 침투한 문화 전통을 반영한다. 첫째 고구려의 귀족들은 중원의 생활 방식을 숭배하고 모방하였다. 그들의 벽화에 묘사된 생활 습관은 한나라와 진나라의 석판, 벽돌, 벽화 및 조각상에 그려진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둘째, 고구려는 유교, 도교, 불교를 수용하였다.(중략) 고대 중국에서 세 종교의 삼위일체 사상을 생생하게 반영하였다. 고구려의 발전과 함께 이 세 종교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종교 및 의식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UNESCO, 2004a:13-14).</p>

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이다(UNESCO, 2004a:13).

이는 고구려가 중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음을 의미하며, 고구려가 한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문화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 내지는 예측된 정권이 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등재 신청서 내에서 고구려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고구려는 중국 북동부의 고대 민족 중 하나였다, 서한의 효원제 2년(기원전 37년) 주몽이 부여에서 유래한 지역 세력인 고구려를 창설하면서 시작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지역 권력과 민족 집단의 이름이 되었다. (중략) 후한 말기에 공손씨가 요동에서 독립 정권을 세웠고, 고구려는 이 정권의 통치를 받았다. 위나라가 세워진 이후 고구려와 공손씨는 모두 위나라의 통치를 받았다. 그러나 두 정권은 후한의 건안 2년(197년) 지역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전쟁을 벌였다. 고구려는 패배했고, 국내성은 파괴되었다. (중략) 산상왕은 209년 수도를 환도산성으로 옮겼다. (중략) 공손씨의 세력이 멸망한 이후 고구려는 직접적으로 위나라와 접경하게 되었고, 자주 갈등을 빚었다(UNESCO, 2004a:24).

여기서 나오는 공손씨(公孫氏)는 후한(後漢) 말 공손도(公孫度)<sup>1)</sup>가 요동 태수로 부임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공손씨 정권”으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한 말에서 삼국시대까지 요동 일대에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며 활거했던 세력을 의미한다. 공손씨는 위(魏)와 오(吳) 양국에서 각기 대사마(大司馬), 연왕(燕王)으로 책봉을 받았다. 위 내용으로 볼 때, 고구려가 공손씨 세력의 통치를 받다가 후에 위나라의 통치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공손씨 세력은 당시 중원의 전란을 피해 오는 유민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약 40만 명의 인구를 보유했을 정도로 이 일대에서는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오순제, 1998). 공손씨 정권은 당시 고구려에게 또 다른 적이었던 부여(夫餘)와도 결혼동맹을 맺었고, 고구려 남쪽 배후에 대방군(帶方郡)을 만들기도 하는 등 고구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적대 세력이었으며, 고국천왕(故國川王)에서 산상왕(山上王)으로의 왕위 계승 과정에도 관여할 만큼 당시 고구려 주변에 있어서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볼 수 있었다. 중국은 고구려가 바로 이 공손씨 정권의 통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등재 신청서 내 “고구려”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고구려는 고구려 민족이 세운 나라이며, 멸망 후에는 중국 민족에 동화되었다. 둘째, 고구려 유산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한자, 벽화 고분의 내용). 셋째, 고구려는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예속

되어 있었다. 이는 고구려는 한민족과 관계없는 민족이며, 중원의 정치, 문화적으로 예속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은 등재 기준 과도 관련이 있는데,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과 동 시기에 등재 심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 만든 유산에 대한 다른 역사성이 나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등재 과정에서 역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IV. 세계유산 등재 이후 중국 내 고구려 유산에 대한 해석

2004년, 중국은 자국 내 고구려 유산 43개소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자 이를 자국사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박물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국은 2004년 요녕성 박물관을 신축 이전하여 개관했으며, 2008년에는 오녀산성 고구려 유적 박물관(五女山山城高句麗遺址博物館)을 개관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집안 박물관을 재개관하였고, 철령박물관(鐵嶺博物館)을 리모델링하여 2016년에 재개관하였다. 이들은 모두 고구려 유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 외에도 국내성과 오녀산성과 같은 유산, 유산이 위치한 집안시 광장, 교육자료에도 중국의 자국사 중심의 고구려사 인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시각은 고구려를 중국 중원 왕조에 예속된 중국 동북지방의 고대 소수민족 지방 정권으로 보는 것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의 시각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유산별 해석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오녀산성

오녀산성은 고구려의 첫 수도였던 졸본(卒本)으로 비정되는 곳이다. 오녀산 명칭의 유래는 당나라 시기 오녀 관련 전설을 원용한 것으로, 고구려 건국과 관계없는 당나라 시대에 다섯 여자가 이 산성에 거주하였다는 전설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은 환인시 광장에 고구려와는 관계없는 오녀상과 같은 상징 조형물을 조성하여, 중국적 역사 전통을 살리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오녀산성에서의 특징적인 것은 산양(山羊) 또는 겸양(賺羊) 조형물인데 오녀산성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 산양 조형물은 고구려 역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동물로서 고구려 민족과 전혀 관련 없는 존재인데, 중국은 이 산양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賺羊은 4가닥의 뿔을 달고 있는 양으로 고대 북방의 양이다. 『逸周書』에 기원전 1035년 주성왕의 성주대회시 고이 공헌품으로 중원에 바친 것이다.”

이는 고구려가 고이족의 후손임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주장해 온 고이족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조형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구려가 중국 내 소수민족 중 하나인 북방 민족에 속하며, 주나라 시기부터 고구려의 선조인 고이족이 이미 중원 민족에 복속되어 있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조법중, 2014).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구려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공간에 고구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오녀상과 산양 같은 조형물을 세운 중국의 의도는, 이들 조형물이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



그림 1. 오녀산성 입구의 산양과 겸양 설명문

출처 : 조법중, 2014:19.

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 중원의 영향을 받은 복속된 지방 정권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집안 박물관

집안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국내성으로 427년 장수왕에 의해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고구려의 수도로 기능했던 곳이다. 이곳에 위치한 집안 박물관은 고구려 전문 박물관으로 고구려 유물을 가장 많이 전시하고 있다. 집안 박물관은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보다는 중국사 시각에서 정리하고, 전시한다는 목적성, 즉 동북공정식 역사 인식의 전파라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집안 박물관에 제1전람관 제목을 漢唐古國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당 시기 동북 지역에 있었던 옛 나라란 의미지만, 관람객 시각에서 보면 한당 시기 중국의 옛 나라라는 표현으로 느낄 수 있다(그림 2). 또한, 건국 관련 서술에서 동북공정식 인식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데, 1층 <전언> 부분의 “기원전 108년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할 때, 고구려인이 모여 사는 구역에 고구려현을 설치하여 현도군 관할하에 두었고, 고구려현 경내에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하는 부분과, 제1전람관의 “고구려현이 설치됨으로써 고구려인들이 漢의 編戶齊民이 되었다”고 한 패널에서 볼 때, 이는 고구려가 현도군 영역 내에서 건국했고, 낙랑국 영역 안에서 멸망했으므로 그 역사는 중국사라고 하는 동북공정의 주요 주장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김현숙, 2021).

“고구려는 중국 중앙 역대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멸망 후 유민들이 한족과 기타 민족으로 융합되었다”라는 내용이 패널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고구려를 사라진 문

명으로 묘사한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의 서술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동북공정식 역사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고구려는 건국 후 (한나라) 현도군에 속하기를 원했고, 지속적으로 중원 왕조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으며, 중원 왕조는 고구려에 조복의책(朝服衣幘)을 내렸다”라는 내용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의례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실제 복속 관계로 왜곡한 것이다. 이 기술은 고구려가 조공을 바쳤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고구려와 중원 왕조 간에 벌어진 전쟁과 대립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의 역사관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중국은 동북공정의 국가주의적 역사관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국내 고구려 유산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요녕성 박물관의 「고대요녕」전

요녕성 박물관은 중국 심양에 위치한 주요 박물관으로, 2015년 열린 「고대요녕」전은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다. 이 전시에서 오녀산성에 대한 설명 패널은 고구려가 서한 현도군 경내에 도성을 건립했다고 기술하며, 이를 통해 고구려가 한군현의 지배 아래에서 건국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는 고구려가 독립적 국가가 아니라 중국사의 일부로 포함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같은 박물관에서 개최한 2004년 「요하문명전」에서는 고구려를 “서한 현도군 내 고이족 정권”으로 묘사하거나 “중원 민족인 고이족이 이동하여 건국한 지방 정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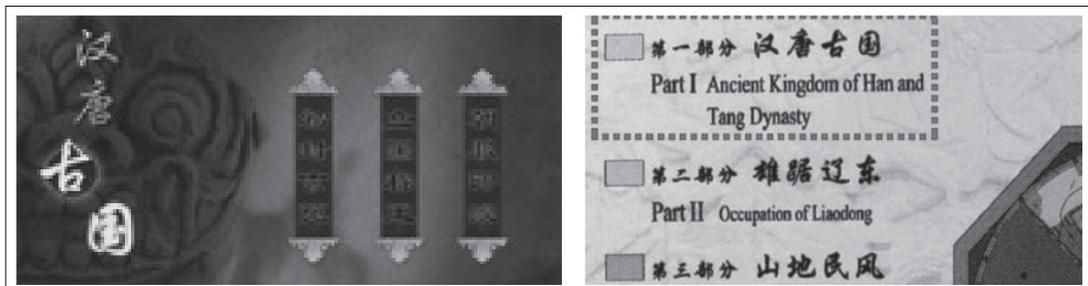


그림 2. 고구려를 한당고국으로 표기한 사례

출처 : 조법중, 2014:31.

규정하며, 동북공정의 역사 서술을 보여주었다. 2015년 전시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을 삼갔지만, 이는 한국과의 역사적 갈등을 의식한 결과일 뿐,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고대요녕」전은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한 국가주의적 역사 인식을 반영하며, 이를 자국민들에게 주입하는 체계를 강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에 대한 내용은 배제되었고, 고구려의 동북아시아 패권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시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 중국은 요녕 지역이 태고 이래 중국사의 일부였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김현숙, 2021).

요녕성 박물관에 전시된 후연(後燕, 384~407) 시기의 요녕성 행정구획도는, 당시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그림 3). 그러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양왕 2년(385) 6월 조에 따르면, 고구려는 북위(北魏)의 부상과 선비족 모용씨 세력의 쇠퇴 시기인 고국양왕 재위 중 요동군을 점령하였다. 이는 이미 이 시기 고구려가 요동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14년(405) 1월 조에는, 고구려가 후연의 요동성 침공을 격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요동의 중심지인 요동성 역시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고구려의 요동 지배를 보여주는 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녕성 박물관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고구려의 영역을 축소하고 있다. 이 역시 고구려의 동북아시아 패권을 축소하고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그림 3. 고구려 영역을 축소해서 그린 후연 시기 요녕 행정구획도  
출처 : 김현숙, 2021:31.

## V. 중국의 등재 신청서 내용에 대한 비판

### 1. 고구려는 사라진 문명인가?

중국의 등재 신청서에는 “이 유역은 사라진 고구려 문명이 남긴 특별한 발자취이다”라고 언급되며, 고구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융화되어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고구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내포한다. 첫째, 고구려 멸망 이후 대부분의 인구가 중국 내지로 이주하거나 끌려가 현지 민족과 융화되었다는 관점이며, 둘째, 고구려 부흥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건국된 발해와 고구려 간의 역사적 연계를 부정하는 시각이다. 결국 이 두 시각을 종합하면, 고구려는 멸망과 함께 역사적으로 단절되었고, 이후의 발해와 고려는 고구려와 무관한 별개의 국가로 보는 중국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인구 대다수가 중국 내지로 끌려가 다른 민족과 융화되었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어디에서부터 제기되었을까? 고구려인이 고구려 멸망 이후 다른 민족과 융화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중국의 동북공정 이전에 제기된 바 있는데, 여기서 “다른 민족”이라 함은 한족(漢族)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중국은 고구려 멸망 당시의 인구 구성의 대부분이 한족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구려 멸망 당시 기록으로 보면 고구려의 총 호(戶)수는 69만 7천 호이며(『구당서』 권5 본기5 고종 총장 원년 9월 계사조), 이 가운데 절대다수는 한사군 이래 존속하였던 한족과 다른 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인데, 중국 측은 이들 대부분이 고구려에 동화되지 않고 수백 년간 한족으로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논거로 3세기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고구려의 총 호수가 3만으로 기록되었



그림 4. 고구려의 후연 공격 지도(405)  
출처 : 정명광, 2012:100.

는데 7세기 고구려 멸망 당시에 69만 7천 호로의 증가는 고구려족 본래의 인구 증가가 아닌 정복당한 각 민족의 인구가 포함된 것으로 당시 중국의 동북 지역의 대다수 인구는 한족이라 주장하고 있다(孫進己, 1992).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이 고구려 유민들을 중국 내지로 데리고 갔다는 기사들은 『삼국사기』 외에도 중국 측 사서인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곳곳에 나타난다. 이를 보아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 유민들을 여러 차례 중국 내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6 문무왕 조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9월 21일에 대군(大軍)(당나라 군대)과 합하여 평양(平壤)을 포위하였다. 고구려왕이 먼저 천남산(泉男産) 등을 보내어 영공(英公)에게 나아가 항복을 청하였다. 이에 영공은 왕 보장(寶藏)과 왕자 북남(福男)·덕남(德男) 및 대신 등 20여 만 명을 데리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각각 김 인문과 대아찬 조주(助州)는 영공을 따라 돌아갔으며, 인태(仁泰)·의복(義福)·수세(數世)·천광(天光)·흥원(興元)도 따라 갔다. 애초에 대군이 고구려를 평정하자 왕은 한성(漢城)을 나서 평양을 향하였는데, 힐차양(貽次壤)에 다다라서 당나라의 여러 장수들이 이미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한성(漢城)에 이르렀다.”<sup>2)</sup>

위 기록은 고구려 멸망 이후 보장왕(寶藏王)을 비롯한 핵심 지배 계층 20여 만 명이 당으로 갔음을 보여준다. 또한 같은 책 「고구려본기」 제10의 기록에서는 당(唐) 고종(高宗)이 고구려 유민을 강제 사민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당 고종 총장 2년(669) 여름 4월에 고종이 38,300호를 강남(江南)·회남(淮南) 및 산남(山南)·경서(京西) 여러 주의 빈 땅으로 옮겼다.”<sup>3)</sup>

위 기사에 따르면 668년 당으로 간 20여 만 명의 고구려인들이 강남, 회남, 산남, 경서 등으로 강제 사민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69년에 이뤄진 강제 사민 기사는 다른 중국 사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구당서』 『고종본기』 총장 2년 5월 경자 조와 『신당서』 『동이열전』 고려 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5월 경자(庚子) 고려의 호(戶) 2만 8천 2백과 거(車) 1천 8십 승(乘), 우(牛) 3천 3백 두(頭), 마(馬) 2천 9백 필(匹), 타(鞍) 6십 두(頭)를 옮겨 내지로 들게 하였는데 내주(萊州)와 영주(營州)에서 반차(般次) 발견(發遣)하여 강회(江淮) 이남과 산남(山南), 병주(井州) 양주 이서(以西)의 여러 주의 공한지(空閑地)에 안치케 하였다.”<sup>4)</sup>

“총장 2년(669)에 고려민 3만 명을 강회와 산남으로 옮겼다.”<sup>5)</sup>

기록 별로 살펴볼 때 적게는 2만 8천 2백 호에서, 많게는 3만 8천 3백 호에 이르기까지 1만여 호의 차이는 있으나, 당이 669년 강회, 산남 등으로 고구려인을 강제 사민한 사실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지로 옮겨간 고구려인들의 숫자는 전체 69만 7천 호 가운데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이 인원들의 중국 내지 이동으로 고구려인이 모두 동화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내지로 이동하였던 고구려 유민 출신의 당의 고위직을 역임하였던, 고선지(高仙芝), 이정기(李正己), 왕사례(王思禮)와 같은 인물들이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족으로 쉽사리 동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와 발해, 고려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국 내지로 간 고구려 유민들은 대부분 고구려의 핵심 지배 계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문무왕 조 기록과 같이 보장왕을 비롯한 보장왕의 아들, 대신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외 다른 유민들이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한사군 이래 존속하였던 한족과 다른 민족들로 고구려인의 정체성이 없었다는 것이 맞는데, 핵심 지배 계층이 사라진 이후에도 고구려의 부흥 운동은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한편, 당은 5부 176성으로 이루어진 고구려 영역을 9도 독부, 42주, 100현으로 재편하고 상급 통치 기관으로 안동도호부를 평양성에 설치하였다. 또한 고구려 지배층 가운데 공이 있는 자들을 자치 현의 장관인 도독, 자사, 현령으로 임명하여 자치를 맡기는 한편, 당 관리가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였다. 이를 기미지배(羈靡支配)라 한다. 기미라 함은 굴레와 고삐를 가지고 말과 소를 제어한다는 뜻인

데, 이민족을 간접적으로 지배, 통어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김강훈, 2018). 하지만 이러한 당의 기미지배는 고구려 유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는데, 초기 평양성에 설치하였던 안동도호부가 후에 요동으로 옮겨가고, 또 한 번, 요서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으며, 당이 이민족 통치 체제를 취했다는 것은 남아 있는 고구려 유민들을 한사군 이래 존속하였던 한족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당서』 『고종본기』 원봉 2년(677)에는 다음과 같이 당이 보장왕을 요동도독 조선군왕으로 봉하여 고구려 유민을 회유하는 임무를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원봉 2년(677)에 장(藏=보장왕)에게 요동도독(遼東都督)을 제수하고, 조선군왕(朝鮮郡王)에 봉하여 요동에 들어가 남은 백성을 안무케 하였다. 이에 앞서 내주(內州)에 편입되어 있던 교민(僑民)을 모두 용서하여 돌려 보내고, 안동도호부를 신성으로 옮겼다. 장(藏)이 말갈과 반란을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었다. 소환하여 공주(邳州)로 추방하고, 나머지 교민들은 하남(河南)과 농우(隴右)로 옮겼다. 노약하고 빈곤한 자는 안동에 머물러 두었다.”<sup>6)</sup>

당시 기록을 보면 고구려 유민들이 당에 대해 완강히 저항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고구려인’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구려인의 정체성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거쳐 발해의 건국으로 이어지며 그 결실을 맺는다. 또한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의 지배 아래에 놓인 고구려인들 역시 약 25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고려 왕조의 개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한편,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大祚榮)의 출자에 대하여 『구당서』, 『신당서』에서 각각 고려별종, 속말말갈로 기록을 달리하고 있어, 발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진 국가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대조영이 어떠한 민족이냐에 따라 그 국가의 성격을 파악하기보다는 발해를 건국한 계층과 세력,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객관적으로 발해를 보는 관점으로 여겨진다. 『송막기문(松漠紀聞)』에 의하면 발해의 왕성(王姓)인 대(大)씨 외의 유력 귀족으로 고(高), 장(張), 양(楊), 두(竇), 오(烏), 이(李) 등 몇 가지 성씨밖에 없다고 하였다. 현재 알려진 발해인은 모두 335명으로 이 가운데 대씨는 100명이고, 고구려 왕실 혹은 거기서 파생된 고씨는 59명으로 대씨는 전체

성씨 가운데 30%를 차지하고 고씨는 18%를 차지하지만 유력 귀족 성씨 중에서는 50%를 차지한다. 또한 발해를 건국 세력에 합류한 말갈 역시 고구려에 예속되어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으며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던 집단이었다. 무엇보다 발해의 문화에는 고구려적 요소가 그 기반이 되었음은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이는 발해 초기 왕실 분묘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무덤 양식뿐 아니라 왕실이나 귀족들의 무덤인 육정산 제1고분군이 거의 석실봉토분이라는 점에서도 고구려 문화가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정원주, 2024).

또한 고구려가 멸망한 지 250년이 된 상황에서도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는 ‘고려’라는 나라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 왕경인 중심의 ‘골품제’에 의한 고구려 유민들의 차별 대우로 인해 옛 고구려 지역에 살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은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며, 특히 통일신라 시기 9서당에서 고구려인, 백제인으로 표기가 된 부대가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삼국이 통일되었다고 하나, 옛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은 여전히 고구려인, 백제인으로 정체성은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옛 백제지역에서는 후백제가, 옛 고구려 지역에서는 후고구려와 고려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며, 고구려의 후예로 지칭되는 호족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던 궁예가 마진, 태봉의 이름으로 국호를 변경하자, 왕건을 중심으로 한 패강진(溟江鎭) 호족 세력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의 이름으로 새 왕조를 개창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구려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발해, 고려로 계승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들의 일부는 중국 내지로 옮겨졌으나, 대부분은 고구려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발해가 건국되었고, 신라 지배 아래 있던 고구려 유민들은 신라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신라인으로 동화되지 않은 채 고구려 유민 의식을 가지고 250년을 살아갔다. 이 세력이 주축이 되어 고려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발해와 고려로 계승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고구려 문화는 중국에 예속되었나?

앞서 중국은 등재 기준 (ii) 항목을 적용하면서 고구려 문화의 중국 예속성에 대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근거를 들

었다. 그 첫 번째가 광개토태왕릉비의 한자 사용의 예이고 두 번째는 고구려 벽화에서의 생활 습관에 대한 기록, 유교, 불교, 도교의 수용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주로 ‘동아시아 문화권’을 언급할 때 공통으로 나오는 항목들인데, 중국은 이를 자국 문화의 특징으로 보고 고구려가 문화적으로 중국에 예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등재 신청서의 내용에서 광개토태왕릉비를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중국어 체계를 채택하였고, 자체적인 문자를 창조하지 않았으며, 광개토태왕릉비의 한자 사용은 고구려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라 언급하고 있다. 한자의 사용은 당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들은 같은 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을 달리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구결(口訣), 이두(吏讀)식 표현 등의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이 그 좋은 예이다. 차자표기법은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하던 표기법으로 고구려 시조인 동명성왕(東明聖王)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주몽(朱蒙)으로 표기된 것에 반해, 광개토태왕릉비에서는 추모(鄒牟)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뜻은 버리고 음만 취한 표기법으로 이표기(異表記)가 많은 것이 음차 표기의 특징이기도 하다(이기문, 2001). 또한, 광개토태왕릉비의 문장 말미의 “之”의 표현에서 초기적 이두의 표현(이기문, 1981)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볼 때 고구려는 당시 표기법으로 한자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방식의 맞게 바꾸어 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구려가 중국어 체계를 채택하여 썼다는 주장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고구려 벽화와 관련된 생활 습관, 유교, 불교, 도교적 요소에 대하여 중국은 고구려가 자국 문화의 영향

을 강하게 받았음을 주장하는데, 이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로 나타나는 항목들로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한자, 불교, 유교, 율령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대표적인 공통의 문화 요소이며, 불교는 중국에서 고구려로 전래되었으나, 불교는 인도에서부터 태동한 종교로 불교를 중국 고유의 문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 벽화에는 중국 한(漢)나라에서 받은 영향 외에도, 북방문화적 요소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스키타이, 흉노, 선비, 돌궐, 유연족과 같은 북방 초원시대에서 활동한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고구려 고분의 천장 벽화의 강조는 북방초원문화의 동물 양식을 받아들인 북방문화적 요소로 볼 수 있다(박아림, 2008).

이와 같이 중국은 등재 신청서 내의 등재 기준 (ii)항목의 근거에서 광개토태왕릉비의 한자 사용 사례와 벽화에서의 생활 습관, 유교, 불교, 도교적 요소를 들었다. 중국은 (ii)항목을 통해 중국 중원왕조와 고구려의 문화적 동질성을 주장하려 하였으나, 고구려는 중원 문화 외에도 다른 지역 문화를 받아들여 이들을 고구려 고유의 문화로 만들어갔던 것이다.

### 3. 고구려는 중국 왕조의 지방 정권인가? - 공손씨 정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앞서 중국은 등재 신청서에서 고구려가 당의 지방 정권으로 주장하면서 특히, 공손씨 정권의 지배를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공손씨 정권에 패배하여 국내성이 197년에 파괴되었다고 하고 있다. 등재 신청서의 이 내용은 우리나라 사이트에도 아래와 같이 그대로 수용되었다(그림 5).

#### + 역사적 배경

지방권력이며 씨족으로 출발한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첫 번째 수도인 오녀산성을 건설했다. 30년 후에는 국내성으로 천도했고, 427년에는 다시 현재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천도했다. 국내성은 197년에 일어난 권력 다툼으로 파괴되었고, 209년에 환도산성이 세워졌다. 국내성과 환도산성은 수백 년 동안 고구려의 경제·정치·문화 중심지였는데, 이 두 도시는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복구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평양 천도 이후에는 국내성은 보조 수도의 역할을 수행했다.

오랫동안 버려졌던 이 유적지는 1902년 현재의 지안현이 세워진 후에 복구되었으며, 환도성의 잔해들은 1999년과 2002년에 복구되었다. 이들은 20세기 후반에 보호기념물로 지정되어, 1983년에 모든 거주민들은 새로 세워진 환도성을 떠나갔다. 현재 세상에 알려진 무덤 수천 기의 첫 발굴 작업은 2차 세계대전 중인 일본 점령기에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 유적지를 중요하게 여겨 보호, 연구, 보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5. 국내성 197년 파괴를 다룬 내용

출처 :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그렇다면 197년은 어떤 일이 일어났던 해인가? 바로 고국천왕(故國川王, 179~197)에서 산상왕(山上王, 197~227)으로 이어지는 왕위 교체 시기로 공손씨 정권은 바로 이 왕위 다툼에 개입하였다. 고국천왕이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자, 당시 왕후였던 우씨는 형사취수의 관습에 따라 왕의 동생 발기(發歧)와 연우(延優) 중 한 명과 혼인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였는데, 손아래인 연우와 혼인하고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발기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왕궁을 포위하였고, 산상왕의 처자식을 죽였다. 하지만 산상왕이 궁궐 문을 굳게 닫은 채로 3일 동안 버텼고, 결국 발기는 요동의 공손씨 정권에 구원을 청하게 되었다. 공손씨 정권은 3만의 군대로 고구려로 쳐들어왔고, 산상왕은 또 다른 동생인 계수(鬍須)에게 군대를 주어 이를 막았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와 『삼국지』 「위서」는 각각 공손씨 정권이 고구려 왕위 계승에 개입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발기가 이를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병력을 동원해서 왕궁을 포위하고 소리쳐 말하기를, “형이 죽으면 아우가 있는 것이 예이다. 네가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빼앗은 것은 큰 죄이다. 마땅히 빨리 나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처자식까지 목 베어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연우가 3일간 문을 닫고 있고, 나라사람들도 또한 발기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 발기는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고 처자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도망가서 태수 공손도(公孫度)를 보고 알리기를, “나는 고구려 왕 남무(男武)의 친동생입니다. 남무가 죽고 아들이 없자 나의 동생 연우가 형수 우씨와 모의하고 즉위하여 천륜의 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분하여 상국에 투항하러 왔습니다. 앞뒤려 바라건대 병사 30,000명을 빌려주어, 그들을 쳐서 난을 평정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하였다. 공손도가 그에 따랐다. 연우가 동생 계수(鬍須)를 보내 병력을 이끌고 막게 하니, 한의 군사가 크게 패배하였다. 계수가 스스로 선봉이 되어 패배자를 추격하니, 발기가 계수에게 호소하여 말하기를, “네가 차마 지금 늙은 형을 해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계수는 형제간의 정이 없었을 수 없어 감히 해치지 못하고 말하기를, “연우가 나라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비록 의롭지 못한 일이지만 당신은 한때의 분노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니 이는 무슨 뜻입니까? 죽은 후 무슨 면목으로 조상들을 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발기가 그 말을 듣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움을 견디지 못하여 달아나 배천

(裴川)에 이르러 스스로 목을 찢어 죽었다. 계수가 소리 내어 슬피 울며 그 시체를 거두어 풀로 덮어 매장하고 돌아왔다.<sup>7)</sup>

건안(建安) 연간(196~219)에 공손강(公孫康)<sup>8)</sup>이 군대를 보내어 고구려를 공격하여 격파하고 읍락을 불태웠다. 발기(拔奇)는 형이면서도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소노부(洧奴部)의 대가(大加)와 함께 각기 하호(下戶) 3만 명을 이끌고 공손강에게 투항하였다가 돌아와서 비류수(沸流水) 유역에 옮겨 살았다. 지난 날 항복했던 호족도 이이모(伊夷模)<sup>9)</sup>를 배반하므로 이이모는 새로 나라를 세웠는데 오늘날 (고구려가) 있는 곳이 이곳이다. 발기는 드디어 요동으로 건너가고, 그 아들은 고구려에 계속 머물렀는데, 지금 고추가(古雛加) 박위거(駮位居)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뒤에 다시 현도(玄菟)를 공격하므로 현도군과 요동군이 힘을 합쳐 (고구려에) 반격하여 크게 격파하였다.<sup>10)</sup>

『삼국사기』와 『삼국지』의 기록에서 크게 보면 발기와 연우 또는 이이모(=산상왕) 간의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던 것과 이 과정에서 공손씨 정권이 개입하여 고구려와 공손씨 정권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것 두 가지는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두 사서의 기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승리의 주체이다. 『삼국사기』는 명확하게 고구려가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삼국지』 위서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격파하고 읍락을 불태웠다”라는 기록으로 공손씨 정권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198년 2월 고구려가 환도성(丸都城)을 쌓고,<sup>11)</sup> 209년 10월에 도읍을 옮겼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sup>12)</sup> 있는데, 중국 측은 197년 공손씨에 의해 국내성이 파괴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8년 환도성을 쌓고 209년에 수도를 이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성이 공손씨와의 전쟁 과정에서 파괴되었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 조에는 다음과 같이 환도성이 함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20년(246) 겨울 10월에 관구검이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성 안을 도륙하였으며 장군 왕기(王頎)를 보내 왕을 추격하였다.

21년(247) 봄 2월에 왕이 환도성이 전란을 겪어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평양성(平壤城)을 쌓고 백성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仙人) 왕검(王儉)의 땅이다. 다른 기록에는 “왕이 되어 왕험(王險)에 도읍하였다.”라고 하였다.<sup>13)</sup>

위 기록으로 볼 때, 동천왕(東川王, 209~248)시기 위(魏)나라 장군 관구검(毌丘儉)의 침입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고, 이후 파괴된 환도성을 대신하여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겼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책의 기록이라면 환도성으로 도읍을 옮겼을 때 국내성 파괴 기사가 있음이 마땅하지만, 국내성 함락과 파괴 기사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다른 사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공손씨 정권이 고구려 왕위 계승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들이 왕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발기가 왕이 되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왕위 계승은 산상왕(=연우, 이이모)이 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공손씨 정권이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환도성 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를 위해 당시 고구려와 중원왕조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세기 말은 고구려는 신흥 국가로 점차 세력을 확대해 가는 시기였고, 당시 중국 중원 왕조인 후한 왕조는 당고의 금, 황건적의 난 등으로 인해 쇠퇴 일로를 겪고 있는 시기였다. 특히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 각지가 전란으로 피폐해졌고, 각 지역에 할거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공손씨 정권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이 혼란상은 고구려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중국 내지가 혼란해짐에 따라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로 투항해 오는 일이 발생<sup>14)15)</sup>하였고, 이는 고구려 세력 확장에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세력 확장은 중국 왕조에게 있어 위협이 되었고, 이 시기 고구려는 잦은 내침(來侵)을 겪게 되었다. 184년 요동 태수의 침입,<sup>16)</sup> 197년 왕위 계승 과정에서의 공손씨의 침입, 246년 위의 관구검의 침입이 바로 그것인데, 184년의 요동 태수의 침입은 그 규모를 알 수 없으나, 197년 공손씨의 침입은 3만 명의 규모였고, 246년 관구검의 침입에서는 1만 명의 규모였다. 이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의미인데, 고구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대규모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지성인 국내성보다 산성인 환도성을 축조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공손씨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이듬해에 환도성을 축조한 일은 공손씨 세력의 재침(再侵)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손씨 세력과 고구려의 관계는 238년 공손씨 정권의 패망으로 종지부를 찍는다. 이에 앞서 234년 위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내 공손씨 정권의 배후에 위치한 고구려와 화친<sup>17)</sup>하였고, 236년 고구려는 오나라에서 보낸 사신의 목을 베어 위나라로 보내었다.<sup>18)</sup> 237년 고구려가 위에 사신을 보내어 연호를 바꾼 것을 축하<sup>19)</sup>하였고, 이렇게 위나라와 고구려 간의 친교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 238년 위나라가 공손씨 정권을 공격하였고, 이때 고구려의 지원도 있었다는 점<sup>20)</sup>에서 위나라와 고구려는 공동의 적인 공손씨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친교 관계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공손씨 정권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이후 242년 고구려 동천왕이 요동 서안평(西安平)을 공격<sup>21)</sup>하고 246년 위나라의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입하는 등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바로 전쟁을 치르는 모습에서 위나라와 고구려의 화친은 바로 공손씨 정권의 제거가 그 목적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등재 신청서와 우리나라 사이트에 기술된 197년 고구려 왕위 계승 다툼에서 공손씨 세력의 개입으로 국내성이 파괴되었다는 내용은 어떤 역사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이는 중국의 역사 왜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등재 신청서에서는 고구려가 공손씨 정권과 위나라의 통치를 받는 정권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고구려는 공손씨 정권과 지속적으로 대립했고, 결국 공손씨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위나라와 화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 세력의 정치적 예측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국가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위나라의 통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구려가 위나라와 화친을 맺고 공손씨 정권을 멸망시킨 후, 요동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위나라를 공격하는 등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 4. 포용적 유산 해석의 필요성

중국의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유산 등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고구려 유산이 중국의 역사적 관점에서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적인 유산 해석 기준과도 맞지 않으며, 다자적 해석이 필요한 세계유산 보호의 원칙과도 어긋난다. 포용적 유산 해석의 필요성은 특정 국가의 역사적 관점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존중하는

데 있다. 현재 세계유산 제도는 특정 국가가 유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유산이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적 협력을 통해 역사적 내러티브를 구성해야 한다.

오늘날 영국, 독일, 슬로바키아 등 유럽 여러 국가의 영토에 걸쳐 있는 『로마제국의 국경(Frontiers of the Roman Empire)』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단일 국가의 관점이 아닌 다자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역사 인식을 통합하고, 공동의 내러티브를 구성한 대표적인 포용적 유산 해석 사례이다. 이 유산에 대한 각국의 해석은 서로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영국과 독일은 로마제국과의 관계를 문명화와 정치적 질서의 기원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하드리아누스 방벽이나 저지대 게르마니아 리메스는 선진행정과 기술의 상징으로 기억된다(UNESCO, 2008). 반면 중동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로마 유산이 외세의 침략과 식민화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관련 국가들이 다자적 협력 체계(multilateral cooperation structure)를 구축하여 다양한 역사 기억을 배제하지 않고 공존시키는 통합적 역사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즉 로마제국의 국경 유산은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라 로마와 주변 민족 간의 교류, 갈등, 동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문화 접경지대로 재해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공동 해석 지침 개발, 통합된 교육 및 전시 콘텐츠 기획, 공동 브랜드 구축 등 유산 해석 전반에 걸쳐 협력하였다(Breeze and Jilek, 2008).

이 사례처럼 고구려 유산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 등 다양한 국가가 역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단일한 국가의 해석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연구 및 협력을 통해 다층적인 역사적 해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구 협력과 학술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포용적 유산 해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다층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의 역사적 해석을 초월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유산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 VI. 맺음말

본 논문은 중국의 고구려 유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나타난 고구려사 인식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드러난 중국 동북공정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고구려는 과거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 걸쳐 존재했던 국가로서, 오늘날의 지리적 경계로 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에 유산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 유산은 국가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은 자국 내 유산을 중심으로 고구려를 자국 역사에 포함시키려는 국가주의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고구려 유산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해석은 해당 유산을 둘러싼 역사 인식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고구려 유산을 자국의 역사 자산으로만 규정하려는 시도는, 유산이 지닌 다층적인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축소할 우려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유산의 보편적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중국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서는 고구려 유산을 중국 고대사의 일부로 규정함으로써, 고구려가 독립된 정치체로서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계유산 제도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조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세계유산 제도 또한 유산이 특정한 장소에 기반함으로써 특정 국가나 민족의 정치적 이해와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구려 유산의 등재 과정에서는 관련 국가 간의 역사와 유산 해석 차이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단순한 보존·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인식과 유산 해석의 문제가 핵심적임을 의미한다.

과거의 국가 영토와 주권이 현재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고구려 유산의 해석과 보존에 있어서는 ‘포용적 유산 해석’이 필수적이다. 포용적 유산 해석은 특정 국가의 역사적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산이 지닌 복합적인 역사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접근 방식이다. 고구려 유산은 단일한 역사 주체의 산물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교차하고 융합된 역사적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다자적이고 협력적인 관점이 필수적이다. 로마제국의 국경 유산은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례로 과거 지리적 경계를 공유한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문화유산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고구려 유산에 있어서도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포용적 유산 해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중재와 지원이 중요하다. 국제기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수 있는 역사 해석을 조정하고, 문화유산이 국제적인 기준과 가치에 따라 보존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고구려 유산의 경우에도 유네스코가 관련 국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공동 연구와 보존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고구려 유산은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고구려 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주의적 역사 해석을 넘어서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구려 유산을 단지 특정 국가의 역사 자산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공동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고구려 유산이 보편적 가치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세계유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데에도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다.

## 註

- 1) 공손탁이라고도 한다.
- 2)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6 문무왕조
- 3)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10 보장왕조
- 4) 『구당서』 「고종본기」 총장 2년 5월 경자조
- 5) 『신당서』 「동이열전」 고려조
- 6) 『구당서』 「고종본기」 원봉 2년조
- 7)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4 산상왕조
- 8) 공손도의 아들, 공손도가 204년에 죽었으므로 오기로 보인다.
- 9) 산상왕으로 추정된다.
- 10)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
- 1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4 산상왕조
- 1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4 산상왕조
- 13)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조
- 14)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4 고국천왕조 “19년(197)에 중국에서 큰 난리가 일어나 한인(漢人)들이 난리를 피하여 투항해 오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때가 한나라 헌제(獻帝) 건안(建安) 2년이었다.”
- 1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조 “21년(217)

가을 8월에 한(漢)의 평주(平州) 사람 하요(夏瑤)가 백성 1천여 가(家)를 데리고 투항해 오니 왕이 이들을 받아들여 책성(柵城)에 안치하였다.”

- 16)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4 고국천왕조 “6년(184)에 한의 요동태수가 군대를 일으켜 우리를 쳤다. 왕이 왕자 계수(隸須)를 보내 적을 막았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왕이 친히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가서, 한의 군대와 좌원(坐原)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베어버린 (적군의) 머리가 산처럼 쌓였다.”
  - 17)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조 “8년(234)에 위(魏)가 사신을 보내 화친하였다.”
  - 18)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조 “10년(236) 봄 2월에 오(吳)나라왕 손권(孫權)이 사신 호위(胡衛)를 보내 사이종계 지내기를 청하였다. 왕은 그 사신을 잡아두었다가 가을 7월에 이르러 목을 베어 머리를 위(魏)에 보냈다.”
  - 19)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조 “11년(237)에 위(魏)에 사신을 보내 연호를 바꾼 것을 축하하였다. 이 해가 경초(景初) 원년이다.”
  - 20)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조 “12년(238) 위(魏)의 태부(太傅) 사마선왕(司馬宣王)이 무리를 거느리고 공손연(公孫淵)을 토벌하니 왕이 주부(主簿)와 대가(大加)를 보내 병사 1,000명을 거느리고 이를 돕게 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 “경초 2년(238)에 태위 사마선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공손연을 토벌하니, 위궁(位宮)이 주부(主簿)와 대가(大加)를 파견하여 군사 수천명을 거느리고 군대를 도왔다.
- 21)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조 “16년(242)에 왕이 장수를 보내 요동 서안평(西安平)을 습격하여 격파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 “정시 3년에 위궁이 서안평을 노략질하였다.”

## 참고문헌

- 김강훈, 2018, “고구려 멸망 직후 당의 고구려 故地 지배 시도와 유민의 동향” 대구사학, 133, 31-73.
- 김숙진, 2021, “세계유산의 계보학과 지리학적 함의”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24(1), 149-160.
- 김준희, 2023, “동북공정의 주요 논리와 예·맥·한에 대한

재검토,” *현대사회과학연구*, 27, 1-19.

김현숙, 2021, “박물관 전시를 통해 본 중국의 동북공정식 고구려사 인식,” *고구려발해연구*, 71, 9-39.

김현숙, 2022, “한중 역사갈등의 현황과 과제 - 동북공정을 넘어 미래로,” *동북아역사논총*, 77, 7-48.

박아림, 2008, “고구려 벽화의 북방문화적 요소,” *동북아역사논총*, 22, 219-248.

신미아, 2011, “북한과 중국내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관련 쟁점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40, 83-107.

오순제, 1998, “2C말~3C 중엽 고구려의 요동 진출에 대한 연구,” *선사와고대*, 11, 111-135.

이기문, 1981, “이두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 52, 68-78.

이기문, 2001, “고대 삼국의 언어 표기관” *새국어생활*, 11(3), 37-48.

이나연, 2021, “세계유산 해석에 관한 비판적 연구 : 한·중·일의 세계유산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나연, 2022, “박물관에서의 유산 해석(heritage interpretation)과 유산 설명(heritage presentation): 박물관의 발전 과정에서 살펴본 유산 설명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43, 87-112.

이현경·이나연·손오달, 2020, “문화유산학이란 무엇인가?: 문화유산학의 지형도 및 발전 분석,” *미술이론과 현장*, 30, 69-98.

정명광, 2012,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후연정벌,” *백산학보*, 92, 83-127.

정수진, 2007, “근대 국민국가와 문화제의 창출,” *한국민족학*, 46, 343-373.

정원주, 2024, “고구려 멸망에서 발해 건국으로의 계기와 연속성,” *한국사상사학*, 76, 1-40.

조법종, 2014, “중국 고구려 세계유산의 현황과 활용, 박물관 및 기념 조형물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50, 9-39.

三國史記  
舊唐書  
三國志  
新唐書

孫進己, 1992, *東北民族源流*, 黑龍江人民出版社.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Editions.

Australia ICOMOS, 2013, *The Australia ICOMOS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of Places of Cultural Significance*.

Breeze, D. J. and Jilek, S. (eds.), 2008, *Frontiers of the Roman Empire: The European Dimension of a World Heritage Site*, ICOMOS Heritage at Risk Report.

ICOMOS, 2008, *The ICOMOS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Lumley, R. ed., 1988, *The Museum Time-machine*, London: Routledge.

Lowenthal, D., 1998, *The Heritage Crusader and Spoils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urnbridge, J. and Ashworth, G., 1996, *Dissonant Heritage: The Management of the Past as a Resource in Conflict*, New Jersey: Wiley.

UNESCO, 2004a, 1135-Nomination Text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등재 신청서)

UNESCO, 2004b, 1091-Nomination Text (고구려 고분군 등재 신청서)

UNESCO, 2008, 430ter-Nomination Text (로마 제국의 국경 등재 신청서)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https://heritage.unesco.or.kr/%ea%b3%a0%eb%8c%80-%ea%b3%a0%ea%b5%ac%eb%a0%a4-%ec%99%95%ea%b5%ad-%ec%88%98%eb%8f%84%ec%99%80-%eb%ac%98%ec%a7%80>

교신 : 김숙진, 05029,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지리학과/대학원 세계유산학과 (이메일: sjkim@konkuk.ac.kr)

Correspondence: Sook Jin Kim, 05029,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World Heritage Studies,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Email: sjkim@konkuk.ac.kr)

투고접수일: 2025년 2월 27일  
심사완료일: 2025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2025년 3월 26일